

투데이

광주시장·전남지사 송년 기자회견

“일자리·문화·인권 융합한 행복 복지도시로”

강운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3년 새 해 광주시정의 화두를 ‘상생과 도약’으로 정하고 광주가 또 한번 큰 도약을 이루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년·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에는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으로 채택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 등 22조원 규모 10대 프로젝트가 새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새해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와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15국제디자인연맹총회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광주가 보유한 사회적 자산과 정책수단을 창의적으로 재설계해 일자리·복지·문화·인권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광주형 행복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생태관광·귀농정책으로 도시민 끌어들이 것”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27일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농수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을 회고하고 ‘2013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을 주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녹색축산 등에 주력해 수도권 등 대도시 물물 중국의 잘 사는 1억, 일본 2억명을 겨냥한 ‘고급 식단’을 선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인구를 적극 유입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0년 만에 첫 삼을 뜨게 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찍 땅(간척지)을 줬더라면 진즉 시작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이미 외국인 투자협약이 이뤄진 곳도 있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과 함께하는 광주시민 축복받았다 세계인의 산 될 수 있도록 소중히 가꿔야”

박선홍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고문

“무등산이 광주시민과 한국인의 것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6층 사무실에서 만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박선홍(87) 고문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는 소식에 환희를 드러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드디어 승격돼 광성의 소원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무등산의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고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무등산으로 소풍을 다녀온 뒤 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됐다”면서 “이후 무등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산에 대해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있었던 것은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강운태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무등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고문은 무등산 보호를 위한 조언도 내놨다. 박 고문은 “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의 손을 닿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케이블카, 등산로 설치 등에 반대하며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와 방송·통신시설들도 하루빨리 이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지법,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1월말 선고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소송 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7일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심리를 갖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31일로 잡았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인 사업자는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에는 문제가 없으며 자금투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주주의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광주시는 “도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본구조를 당초대로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MIG’ LED 제품 첫 美 수출

(Made In Gwangju)

삼진엘앤디 광주공장, 빌보드 투광기 300대·가로등 50대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광산업 도약방안 모색 차원에서 추진해 온 LED 조명제품 미국 수출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광주시는 27일, 평등산단에 있는 삼진엘앤디 광주공장에서 강운태 시장과 이경재 삼진엘앤디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LED 빌보드 투광기 미국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

빌보드 투광기 300대와 LED 가로등 50대로, LED 조명제품 대미 수출프로젝트 추진으로 확보된 계약량의 첫 물량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 측과 수출협약 체결 이후 기술적 사양에 대한 변동성이 심한 LED 시장의 요구를 충족한 것이어서 내년부터는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Made In Gwangju) 제1호를 획득한 것이어서 향후 MIG 브랜드사업의 발전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 광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을 구성,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유망 및 동반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위해 “친환경 농업을 주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녹색축산 등에 주력해 수도권 등 대도시 물물 중국의 잘 사는 1억, 일본 2억명을 겨냥한 ‘고급 식단’을 선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헌재, 선거법상 사후 매수죄 합헌 결정

곽노현 前서울교육감 헌법소원도 ‘무위’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이미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무위로 끝났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대

국회 사무총장에 정진석 실장 내정



강창희 국회의장은 새 국회 사무총장에 정진석(52·사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1999년 자민련 명예총재특별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부친 정석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연기에서 첫 배지를 달았다. 18대까지 내리 3선을 했으며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회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내정자에 대한 임명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특전부사관과도 역시 조선이공대학교. 2012년 졸업생 100%취업 부사관 80%임관. 2012년 특전부사관 군정학생 선발시험 전국 최다 합격. 특전부사관 및 육해공군 부사관 동시 지원가능 100%보장. 부사관 학과 중 납부금 가장 저렴 각종 장학금 혜택. 교수 3명 전원 특전사 대령 출신으로 맞춤식 교육.

은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기 재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병들은 정녕 노력의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경당 한의원.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의과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공무원 대출.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련본은 꼭!! 연락주세요.